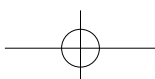


Part 1

서론

- 1절 마약류의 개요
- 2절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제1절 마약류의 개요

1.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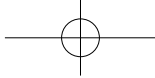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하며,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함.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틀어 가리키는 의미로 혼용되었음.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여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함
- 세계보건기구(WHO)¹⁾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는
 -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③ 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됨
-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 종류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말함
-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의존성 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반합성 마약으로, 그리고 제조원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함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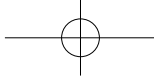
1) 마약

가) 개요

-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표 1-1] 마약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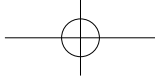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분류	품명	지정 성분수	비고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3	
추출 알카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35	일부 의료용 사용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돈, 펜탈닐 등	81	일부 의료용 사용



○ 관련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나) 종류

(1) 천연마약 및 추출 알카로이드²⁾

(가) 양귀비

-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罌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임

[그림 1-1] 양귀비



- 기원전 5,000년경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돌에 아편 관련 지식을 새겼던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임.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음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은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됨

2) 식물염기(植物鹽基, alkaloid)라고 하며,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화합물로서 동물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카페인, 모르핀, 코카인, 니코틴 등이 잘 알려진 알카로이드임

-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견할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국내의 경우 양귀비는 아편을 추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상비약이나 동물 치료약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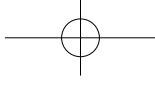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나) 아편(阿片)

- 아편(opium)은 설익은 양귀비의 열매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우윳빛 추출액을 60℃ 이하에서 건조시킨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불리움

[그림 1-2] 아 편



-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음. 처음 한두 번 아편을 흡입하는 때에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때에는 최초의 약효를 얻기 위해 보다 많은 양을 흡입해야 하는 등 심각한 중독증상에 이르게 됨
- 아편을 지속적으로 남용할 때에는 남용자의 낮빛이 창백해지고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질되며, 식욕과 성욕의 상실을 비롯하여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임



- 영국과 아편전쟁(1840년~1842년)까지 벌였던 중국(당시 淸國)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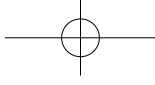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다) 모르핀

-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진통성이 강한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ürner는 아편에서 최초로 모르핀을 분리하였고, 그리스 신화의 Morpheus(꿈의 여신) 이름을 따서 명명함

[그림 1-3] 모르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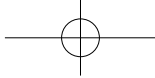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 아편으로부터 추출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과가 뛰어나지만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며, 사용을 중단하는 때에는 심각한 금단증상을 일으킴
-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1회 투약량은 10~20mg) 정도 투약하고,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하루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 이상을 투약하는 때에는 호흡장애를 유발하여 투약자 대부분이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름



(라) 코데인

-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서 의학적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이 탁월하고 신체적 의존성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남용하는 때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함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 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음



(마) 헤로인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제조함

[그림 1-4] 헤로인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 모르핀을 원료로 한 만큼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함
-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이란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바) 코카인

-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로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야기하는 천연 마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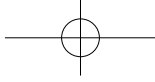
[그림 1-5] 코카나무



[그림 1-6] 코카인



- 코카 잎을 씹으면 잎 속의 알카로이드가 구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 중 최면효과를 내기 위해, 일반인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함
- 코카 잎은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 시 유럽에 전해졌고, 1800년대 중반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1873년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었음
- 남미일대에서 재배된 코카 잎은 농부가 직접 잎사귀를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를 만들고 이를 정제하여 코카인을 제조하지만, 대부분은 정글 내 제조시설에서 코카인 추출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되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법률적 규제 하에 정식으로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함
- 남미의 일부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 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용자들은 수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기로 투약함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흡입 또는 투약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지고, 과다한 양을 흡입 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경련이 일어남. 보다 심할 때에는 호흡곤란으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후 냉각시켜 추출한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음. 유리관에 넣어 가열 또는 기포화하여 흡입함

[그림 1-7] 크랙



(2) 합성마약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내면서도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서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티딘(pethidine)계, 메타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티딘계와 메타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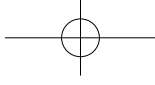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가) 페티딘계

- 페티딘(pethidine)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합성 마약으로서 1939년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의 O. 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됨
- 최초 'Dolantin'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고 'Demerol', 'Pethadel'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티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 등이 있음

[그림 1-8] 페티딘



- 페티딘은 화학적으로는 모르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에서는 모르핀과 유사함. 진통효과 외에 진정효과도 있으며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됨



(나) 메타돈계

- 메타돈(methadone)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헤히스트 제약(Hoechst)이 개발한 합성마약으로서 현재 메타돈, 아세틸메타돌, 디피파논 등이 알려짐

[그림 1-9] 메타돈



- 개발 당시 메타돈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작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화학적으로는 모르핀, 헤로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 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 모르핀보다 약효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전후(戰後) 마약 중독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함
- 소위 ‘메타돈 파동’
1965년 우리나라의 23개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타돈을 일반약품에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제주사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수만 명의 중독자를 발생시킨 사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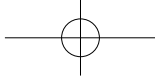
2) 향정신성의약품

가) 개요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로 나눌 수 있음

[표 1-2]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가목 (환각제)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툼(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44	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나목 (각성제)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44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다목 (진정제)	바르비탈(Barbital),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62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및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라목 (진정제)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등	69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관련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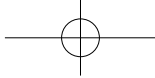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1) 메트암페타민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필로폰’으로 더 알려져 있음

[그림 1-10] 메트암페타민



- 암페타민류에는 메트암페타민을 비롯하여 암페타민, 텍스암페타민, 레브암페타민, 디메틸암페타민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정신적 의존성 또한 매우 강함
- 메트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불림. 불법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총’ 등 은어로 불림
미국에서는 결정체는 ‘Ice’, 가루형태는 ‘speed’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빙두’,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사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불림
- 메트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세계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 메트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여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고,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현재까지도 메트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트암페타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 제고수단으로 사용되었음

[그림 1-11] 마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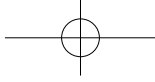
(2) MDMA(3,4-Methylenedioxyamphetamine)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됨.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세계적으로 남용됨

[그림 1-12] MDMA



-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포옹마약(hug drug)'으로 불리기도 함
-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일으키며, 3~4시간 약효가 지속됨.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 투약자를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도 함



(3) LSD

-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Albert Hofmann에 의해 최초 합성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서 일반적으로 종이 또는 정제에 LSD용액을 흡착하여 사용함

[그림 1-13] LSD 스티커



[그림 1-14] 정제형 LSD



(4) 날부핀(Nalbuphine)

- 날부핀은 일명 ‘누바인’이라고도 불리며 응급환자의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었으나, 환각성이 있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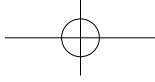
[그림 1-15] 날부핀



- 피하 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고 약효 지속 시간은 3~6시간이며, 날부핀 3mg은 필로폰 6mg에 해당하는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음.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을 유발함

(5) 텍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텍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거담제로서 일명 ‘러미라’라고 불리는 약물로, 필로폰, 날부핀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이 남용하고 있음



[그림 1-16] 덱스트로메토르판



- 카리소프로돌은 근육이완제로서 일명 'S정' 이라고 불리는 약물로, 리미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일부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음

(6)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국교포 보따리 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는 약물임.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심감미교환, 패씨감비환, 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유통되고 있음

[그림 1-17] 펜플루라민



- 과다 복용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음

다) 기타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1)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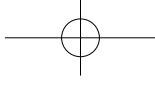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 대마의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³⁾와 화학 구조가 유사하지만 대마보다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synthetic compound)임

[그림 1-18] JWH-018, HU-210, CP-4749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는 크게 JWH계열(JWH-018, JWH-030, JWH-175, JWH-176 및 그 유사체)과 HU-210, CP-47497 등으로 신경계에서 작용하여 진통제 역할을 하는 물질임

3) 대마초에 들어있는 환각성분으로, 화학명칭은 델타나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이며 약칭으로 'THC'라고 함



(가) JWH-018

- 일명 ‘스핑크’, 또는 ‘스페이스’ 등으로 불리며, 천연 마약류인 대마와 전혀 다른 향정 신성의약품임
- 건조된 식물에 합성물질을 흡착시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됨.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며 그 효과가 대마보다 강함

(나) HU-210

- 1988년 스위스 히브류대학의 라펠 메코람 교수 연구팀이 최초 합성한 대마성분으로서 ‘HU’는 Hebrew University의 약칭임
- 대마초의 천연 THC성분보다 100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내고 지속기간이 더 김

(다) CP-47497

- 1980년 화이자제약에서 진통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마성분을 첨가하여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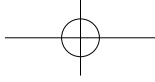
(라) AM-2201

- 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 Center Drug Discovery의 교수인 Alexandros Makriyannis에 의해 특허 등록된 합성마약류로서 영문이니셜에 따라 'AM'으로 명명되었다고 함

[그림1-19] AM-2201



- JWH-018 유사체(불소만 추가됨)로서 일반적으로 JWH-122, JWH-250 등과 혼합된 제품유형이 'SPACE CADET FLIGHT RISK'라는 품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됨
- 합성마약류를 건조된 식물의 앞에 흡착시킨 후, 비닐봉지에 1~10g씩 소매로 포장, 판매되는데 그 환각효과는 JWH-018의 10배, 대마초성분의 40배 수준이며, 불소 성분 함유로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젖은 빵, 말린 과일 등에 넣어 희석시켜 복용하거나 허브와 섞어 흡연함



(2) 크라툼(Kratom)

-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이라고 칭하며, 다 자라면 높이 15미터에 이름
-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한 각성제로 수십 년 전부터 복용하였고, 잎을 씹거나 차 형태로 복용하거나 분말을 타서 마시기도 함
- 소량 복용 시 각성효과로 인해 말이 많아지고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면 진정과 도취 효과와 함께 구토, 현기증 등 부작용을 일으킴

(3) 케타민(Ketamine)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하는 ‘케타민’은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킴.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림

[그림 1-20] 케타민



- 정맥이나 근육 주사, 흡연 또는 흡입하면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 효과가 나타나고, 남용방식에 따라 1~6시간 정도 환각효과가 지속되며, 맥박과 혈압 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부작용을 일으킴

(4) BK-MDEA

- MDEA⁴⁾ 유사체로 AM-694 등 변형체로 유통되며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환각효과를 일으킴

[그림1-21] BK-M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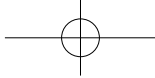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5) 야바(YABA)

- 세계적 마약밀매조직인 ‘쿤샤’가 개발한 것으로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이라는 의미에서 ‘Horse Medicine’이라고 통용됨
- 필로폰(약 25%)에 카페인(약 70%), 기타 성분(코데인 등 약 5%)을 혼합한 것으로 기존 필로폰과는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정제나 캡슐형태로 포장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용이함
- 복용 후 수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높은 혈압이 30시간까지 지속되어 신경조직이 파괴됨. 탈수 증세와 함께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며, 수일간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킴

4) 환각 및 각성효과를 가지고 있는 페네틸라민과 암페타민계열의 디자이너약물임

※ 디자이너 약물이란 불법 약물의 화학구조를 다소 변형시켜 제조한 합성 도취마약의 총칭으로 흔히 암페타민을 기초로 조제되는데 그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손상을 주며 사용자의 성격을 변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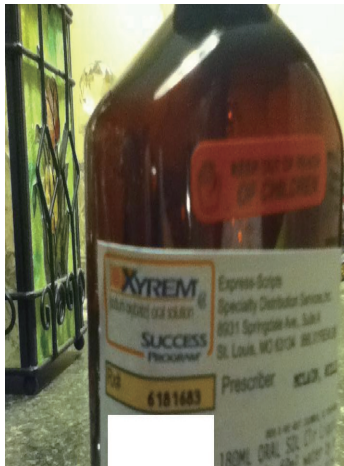
[그림1-22] 야바



(6) GHB(Gamma Hydroxy Butyrate)

-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각성제 · 근육강화제로서 ‘데이트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됨

[그림1-23] GHB



-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희석하여 복용하면 10~15분 이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킴.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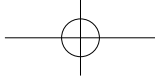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7) 프로포폴(Propofol)

- 영국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社에서 최초 개발하여 1977년 임상시험을 거쳤고, 국내에는 1992년부터 사용이 허가됨
- 수면마취제로도 불리는 정맥투약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에 사용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내시경 검사 마취 등에 사용됨

[그림1-24] 프로포폴



-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과 혈압저하 현상을 비롯한 두통, 어지러움, 경련, 구토, 흥분, 착란 증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이 좋게 만드는 환각효과가 있음. 국내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남용됨에 따라 2011. 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



3) 대마

가) 개요

- 대마는 칸나비스 屬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었음.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음

[그림 1-25] 대마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로서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황제시대의 기록에 등장하고,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원료로 사용되었음
- 우리나라에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이후 흡연형태의 대마초가 널리 전파됨

-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시행일 : 2016.11.4.]

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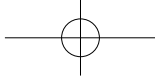
(1) 대마초(大麻草)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학명은 ‘Cannabis Sativa Linne’이며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 불림

[그림 1-26] 대마초와 흡입기구



- 그 중 암나무의 경우에는 씨앗 생성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 (tetrahydro 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도취, 환각상태를 높게 나타내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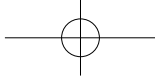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함. 한편 마리화나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각제로 분류됨.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 공복감 등을 일으키고 사고의 형성 및 표현의 예민한 변화와 함께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을 오묘하게 변화하게 함.
- 남용할 때에는 투약자에게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며, 집중력과 자아의 상실, 환각, 환청 등을 일으킴.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함
- 대마 남용의 위험성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거나,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 또한 높이는데 있음

(2) 해시시(Hashish)

-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 덩어리의 형태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여 대마초보다 8배~10배 가량 작용성이 강함

[그림 1-27] 해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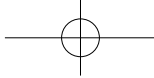




-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함
- 보통 1kg의 해시시를 제조하기 위해 약 30kg의 대마초가 필요함
- 해시시 오일(Hashish Oil)은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고도로 대마를 농축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름

[그림 1-28] 해시시 오일





3. 마약류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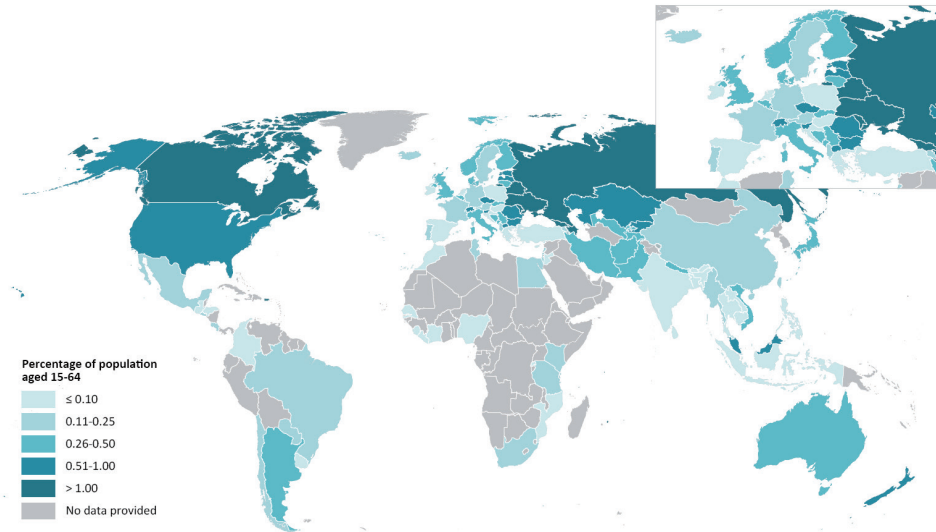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품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마약	아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 혼동, 사망	2
	메타돈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티딘	억제	진정·진통	주사	”	3~6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	4~8
	LSD	환각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롤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 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억제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⁵⁾

1. 국제 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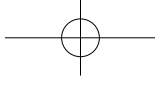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 UNODC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15세~64세 인구 20명 중 1명이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난 4년간의 추세로 볼 때 투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님
- 2,900만 명이 약물 복용장애를 겪고 있고 이들 가운데 1,20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고 있으며 이중 14%는 HIV 감염자임
- 가장 널리 재배되는 마약류 식물은 대마로 2009년~2014년 사이 전 세계 129개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양귀비는 49개 이상의 국가에서 재배되었는데 대부분이 아시아와 미주지역이었으며, 코카는 미주지역 7개 국가에서 대부분 재배되고, 전체적으로 양귀비 재배는 감소 추세지만 코카 재배는 증가하고 있음

[그림 1-29] 2014년 주사 마약류 남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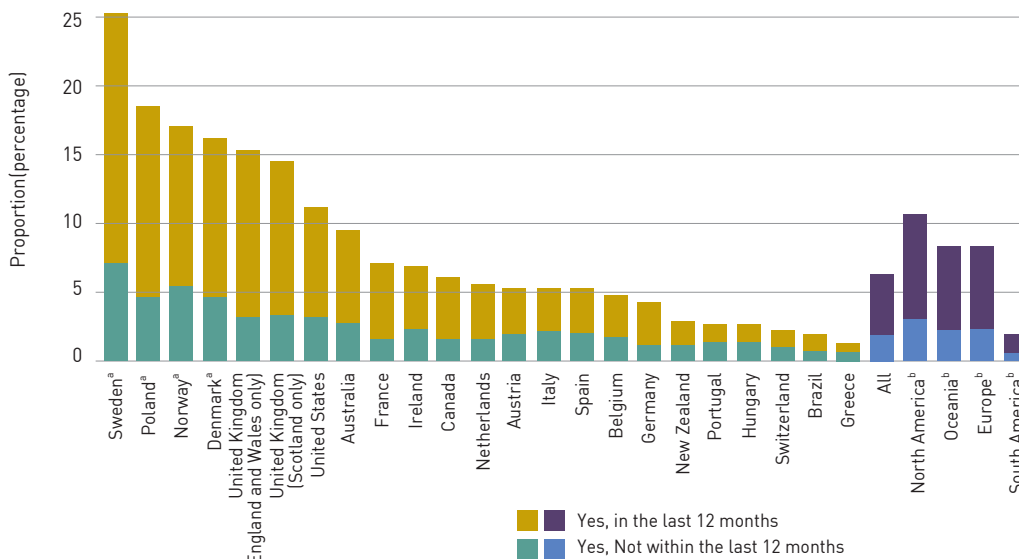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5) UNODC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Vienna



- 2014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207,400명이며, 전체 사망자수 가운데 약 1/3 내지 1/2 사이의 투약자가 아편유사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됨
- 북미지역에서 마약류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 전 세계 마약류 관련 사망자수의 25%를 차지하며, 2004년 이래 미국에서 거의 50만 명이 마약류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2014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이중 61%가 처방된 아편유사제와 헤로인 복용자임
- 2014년 50개 국가에서 100,000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참여한 전 세계 설문조사⁶⁾에 따르면 마약류 남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2000년 1.3%에서 2009년 4.9%로, 2013년 16.4%에서 2014년 25.3%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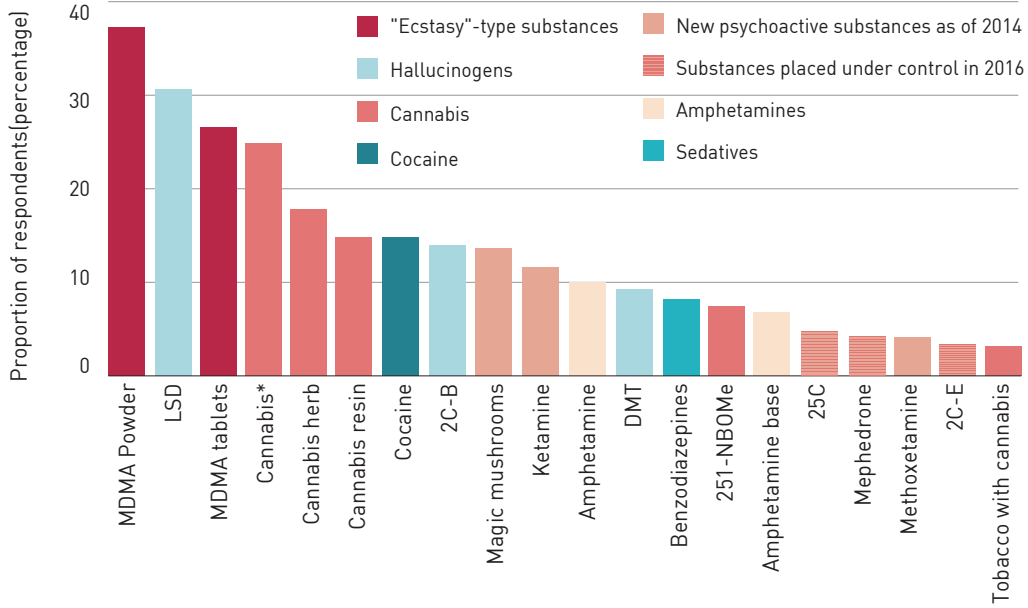
[그림 1-30] 2014년 다크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국가 및 지역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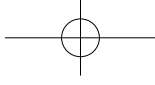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6) Global Drug Survey 2015 조사결과 (www.globaldrugsurvey.com)

[그림 1-31] 2014년 다크넷에서 구입한 마약류 종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2. 최근 특이경향

가. NPS(New Psychoactive Substances, 신종 향정 물질)

- NPS는 UNODC에서 '순수한 형태 또는 조제의 형식으로 남용되는 물질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또는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의해 통제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 NPS는 'designer drugs', 'legal highs', 'hebal highs', 'bath salts', 'research chemicals', 'laboratory reagents'로 불리는데, 신종(new)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NPS가 이미 40년 전 처음 합성되었기 때문에 새로 발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마약통제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의미함
- NPS는 보건문제와 직결되는데 NPS 남용자들은 심각한 중독증세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남용 후 발생한 설명할 수 없는 자살사건이 다수 있었으며 메페드론, MDPV와 4-MA 역시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물질임

나. 판매되는 NPS 카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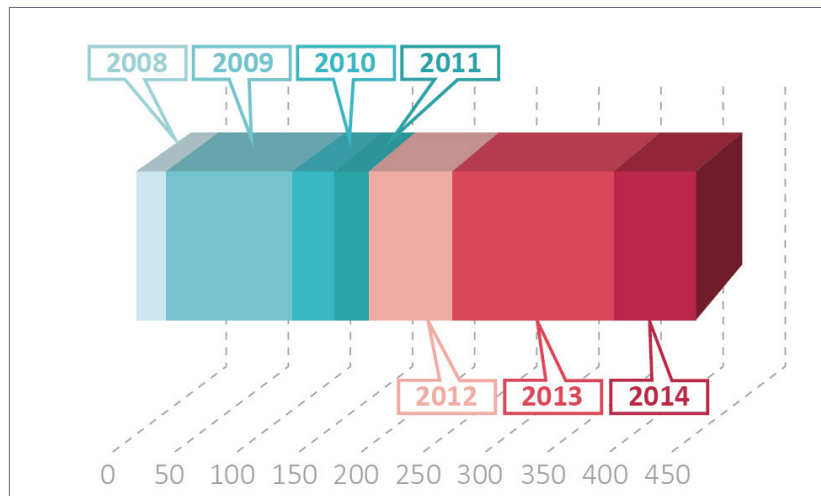
- 합성 대마(Synthetic Cannabinoids) - THC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s)과 섞어 Spice, K2, Kronic 등의 이름으로 판매됨
- 합성 케치논(Synthetic Cathinones) - 식물 Khat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케치논의 유사체로 메페드론(Mephedrone)과 MDPV가 있음
- 케타민(Ketamine) - 사람 및 동물의 마취제로 저용량 복용시 각성 효과, 고용량 복용시 환각효과가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남용되는 NPS 가운데 하나임
- 페네틸아민(Phenethylamines) - 암페타민과 메트암페타민 관련 물질을 포함하며 통상 각성제로 생산되나 화합물의 수정을 통해 강력한 환각제가 될 수 있음

- 피페라진(Piperazines) - 각성효과로 인해 종종 ‘엑스터시’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며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 BZP)과 mCPP가 가장 유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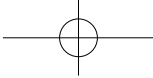
- 식물기반 물질(Plant-based substances) - 향정신성 물질을 포함한 식물
 - 크라툼(Kratom) : 저용량 복용시 각성효과, 고용량 복용시 진정효과가 있는 동남 아시아 원산지 식물
 -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환각성분이 있는 멕시코 원산지 식물
 - 카트(Khat) :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와 아라비아 반도가 원산지인 식물로 케치논(cathinone)과 cathine(케친)이 포함되어 있고 씹어서 복용함

- 기타
 - 아미노인단(Aminoindanes) : 각성제
 - 펜시클리딘 타입 물질(Phencyclidine-type substances)과 트립타민(Tryptamines) : 환각제
 - ※ 다만 우리나라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 케타민, α -PVT, PMMA 등이 이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음

[그림 1-32] 2014년 보고된 NPS 개수와 UNODC 최초 보고 연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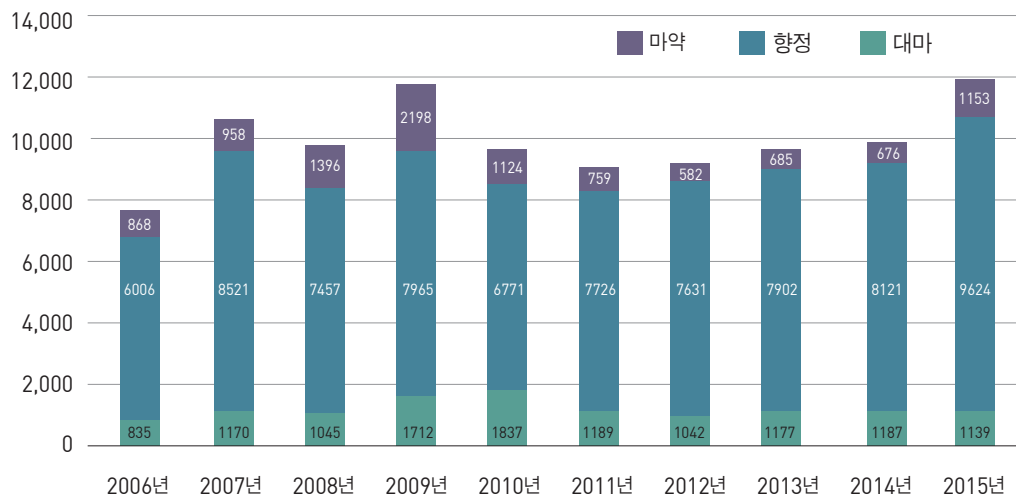


3.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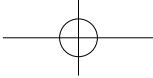
가. 국내 마약류사범 동향

-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명 선 이하로 억제됨
- 2015년에는 11,916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1만명을 상회함. 기존 마약전과가 있는 마약류사범 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들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그림 1-33]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 2015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1,916명으로 전년(9,984명) 대비 19.4% 증가하였고, 아울러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3,237명으로 전년(2,927명) 대비 10.6% 증가하였음. 수사기관이 마약류 공급선을 차단코자 공급사범 위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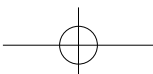
- 2015년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총 82.5kg으로 전년대비 13.6%(전년도 72.6kg) 증가함. 특히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56.6kg을 압수하여 전년대비 18.7%(전년도 47.7kg) 증가하였으며, 대마초는 24.0kg으로 전년대비 3.0%(전년도 23.3kg)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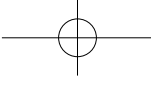
나.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 기술 습득, 소규모 마약류 제조사건 적발

- 2010년 화학박사가 신공법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
- 2011년 주한미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일명 ‘스파이스’를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
- 2012년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제조 방법을 습득, 감기약 등으로 필로폰, GHB 등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
- 2013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일반인과 호주국적의 제조기술자가 필로폰을 각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
- 2015년 일반인이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주거지에 제조 시설을 갖춰 필로폰 제조한 사례 및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6회에 걸쳐 필로폰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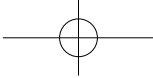
다. 우리나라 경유하는 마약류 밀수사건 지속적 적발

-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여러 국적의 마약 운반책을 고용하여 우리나라를 마약세탁의 중간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
- 2007년 일본 야쿠자 등으로 구성된 밀수조직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680g을 우리나라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을 시도하다 검거된 사례가 적발됨





- 2008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나이지리아계 코카인 밀수조직이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브라질로부터 코카인 8.8kg을 우리나라로 밀수입한 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한 사례 적발, 일본에 거점을 둔 밀수조직이 일본인 2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2kg을 우리나라로 밀수입한 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적발됨
- 2009년 대만에 거점을 둔 밀수조직이 기존의 밀수 루트(캄보디아 또는 태국 → 대만)를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루트(캄보디아 또는 태국 → 한국 → 대만)로 변경하고, 우리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고용하여 5회에 걸쳐 헤로인 4.94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적발됨
- 2010년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거점을 둔 동남아시아 밀수조직이 대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필로폰 1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적발됨
- 2012년 영국인 운반책이 피지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해 영국으로 필로폰 2.5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적발됨
- 2013년 영국인 운반책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피지로 필로폰 4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 일본 야쿠자 등으로 구성된 밀수조직이 마카오로부터 우리나라로 필로폰 6.24kg을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한 사례, 나이지리아 마약조직과 연계된 독일인 운반책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피지로 필로폰 3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적발됨
- 2014년 일본인 운반책이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필로폰 6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 나이지리아인으로 구성된 밀수조직이 우리 국민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필로폰 4.5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적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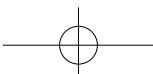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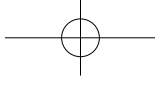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 2015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 2명이 케냐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카티논(Cathinone)이 함유된 식물인 카트(Khat)⁷⁾ 3,169Kg을 밀수출하려는 사례가 적발됨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증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꾸준히 증가(2011년 295명, 2012년 359명, 2013년 393명, 2014년도 551명, 2015년도 640명)
이는 외국인 학원강사 및 근로자, 유학생 등이 증가하였고, 더불어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대마 및 신종 마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적별로는 2011년 중국인 104명으로 1위(35.3%), 미국인 81명으로 2위(27.5%), 2012년 미국인 121명으로 1위(33.7%), 중국인 97명으로 2위(27%), 2013년 미국인 127명으로 1위(32.3%), 중국인 107명으로 2위(27.2%), 2014년 중국인 191명으로 1위(34.7%), 미국인 121명으로 2위(22.0%), 2015년 중국인 314명으로 1위(49.1%), 태국인 122명으로 2위(19.1%)를 차지함

7) 카트(Khat)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카티논 성분이 함유되어 흥분, 도취감 등을 유발하고, 주로 생잎을 씹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는데 카티논 성분은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1987. 5. 향정물질로 지정)





마. 기타 특이사항

- 2015년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5,810g으로 전년대비(13,168g) 55.9% 감소하였지만 신종 마약류 종류는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신종 임시마약류 일부는 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유학생 및 외국인강사 등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프로포폴 압수량은 20,202앰플(50ml)로 그 전년도 2,004앰플(50ml)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서울 강남 일대 병·의원 등지에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제약 회사 직원과 이를 시술하거나 투약한 의사, 연예인 등이 다수 적발되었음. 이후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으로 2013년도 159앰플(50ml), 2014년도 319앰플(50ml), 2015년도 1,630앰플(50ml)이 압수되는 등 최근 남용 사례는 2012년에 비해 감소함
- 다만, 프로포폴이 2011. 2. 마약류로 지정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불법 유통 및 투약 등 남용 사례는 감소하였지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⁸⁾ 밀매 사례⁹⁾가 발생함

8) 백색의 전신 마취제로, 정식 명칭은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임, 수면내시경 검사 등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등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비슷함,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 없으며 프로포폴 보다 가격이 저렴함

9) 2015. 10. 부평식구과 조직원인 약 5만ml(5,000앰플)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 및 32,150ml(3,215앰플) 판매(인천지검)